

기술을 심으며 미래로 향하는

21세기 최첨단 화학연구소



연혁

- 1947년 석회화학공업사로 출범
- 1954년 럭키치약개발
- 1966년 국내최초의 압성세제인 하이타이 개발
- 1974년 (주)럭키로 상호변경
- 1974년 울산화학공장건설
- 1979년 대덕연구단지에 중앙연구소 설립
- 1995년 (주)LG화학으로 상호변경

고객이 모든 사업의 기반임을 깨닫고 고객의 욕구에 맞는 가치를 창조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고객과 함께 발전함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는 LG화학연구소를 탐방했다.

충남 대덕단지내에 위치한 LG화학연구소는 세계일류 연구소와 경쟁하기 위해 86,000평 부지에 총 건설비 2,000억원을 투자하여 고객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고객의 요구에 가장 신속하게 움직임은 물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창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79년 기업부설연구소로는 처

음으로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했습니다. 연구소의 설치는 연구위주와 실험위주로 설계되었고 지붕과 옆면을 유리창으로 되어있어 자연채광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건물은 세미나실, 연구실, 실험실, 복사 및 팩스실 등 전문영역으로 설계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과학적으로 진행됩니다. 조감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의 연구소가 완공되면 전 직원들이 일일이 서류와 연구실적을 갖고 보고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E-Mail형식을 구비해 놓은 최첨단 화학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환경문제가 곤두서 있는데 저의 연구소는 그린테크놀로지의 정신으로 수거·소각의 전공정을 위한



▲ 94년 10월 27일 개원한 LG화학기술연구원 중 1차 준공된 바이오텍 1,2 연구동 전경

Project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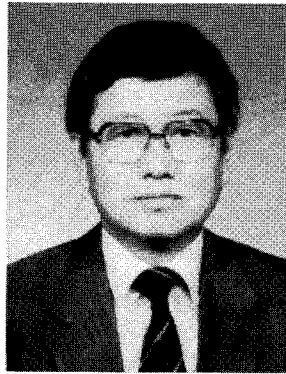
기술연구원 기획팀 김종성씨의 말이다.

LG화학기술연구소는 95년도 예산 총 700억중 바이오연구소에 44%, 고분자연구소에 25%, 정밀화학연구소에 20%, 정보전자소재연구소에 11%를 투자받고 있다. 매출액의 3.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술혁신과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고분자 연구소

고분자연구소는 'R & D를 통한 혁신과 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각종 종합기술에 대한 연구, 특수한 가교결합, 고분자 훈련, 복합 재료화 등 다양한 기술로 새로운 개념의 고열 고내충격 ABS와 특수난연 ABS, PBT 종합 기술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PS, PE, PVC 등 범용 플라스틱의 신제품, Polyacetal, PMMA 등 120여종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은 물론 복사기 TONER 수지, 고흡수성 수지 등 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완료하였다. 고도의 물성을 구현하는 각종 신소재의 창출을 위해 신규 합성법 및 재료의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 신규축매나 저공해 원료를 이용한 공정개발연구 및 재료의 이용 연구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분자 연구소는 기술센터를 설립하여 LG화학의 각종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가공법 개발연구, CAD/CAE를 이용하다가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과감한 연구개발로 언제나 고객 가까이서



▲최남석 LG화학 기술연구원 부사장
고분자화학 박사
과학기술발전공로 국민훈장 목련장 (1979)
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 동탑산업 훈장 (1993)
Alza Corp. U.S.A. 책임연구원 역임
(주)럭키 중앙연구소 상무이사 역임
(주) 럭키 중앙연구소 부사장 역임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부가치의 최첨단 기술로 21세기의 화학공업을 선도하는 정밀화학연구소

정밀화학연구소는 선진국형 R & D체제구축,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력 집중, 품목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라는 연구개발 전략으로 농약분야의 신물질 창조, 신기술에 의한 농약, 염료, 핵심중간체 및 첨가제합성, 공업화를 위한 새로운 공정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정밀화학연구소는 <꿈의 농약>이라 불리

는 사이퍼메트린을 비롯하여 10여종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개발 생산해왔으며 제초제, 살균제 등의 기존농약, 분산염소,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을 개발, 상품화하였다.

풍요의 21세기를 위하여 생명이 무한한 영역을 탐구하는 바이오텍연구소

바이오텍 연구소는 유전공학 핵심 기술의 조기습득 및 정착을 완료하고 각종 생리활성 물질 창출 및 신물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 및 그에 따른 스크리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연구개발과 임상실험으로 국내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인터페론 감마를 비롯, B형 간염백신, C형 간염 진단시약, 인간성장호르몬, CSF, 림포카인류, 동물 성장촉진제등을 상품화하여 유전공학 연구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텍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제4대 세파계 항상제 개발에 성공, 영국 Glaxo사에 기술수출 및 국내외의 28개국에 물질특허를 출원하



▲ 신규농약 효능검사를 위한 농작물 시험



◀ 유전공학제품의
항암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배양세포 관찰
시험

는 등 국내 첨단기술력의 세계화에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다.

**기술융합 연구개발을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정보전자소재연구소**

정보전자소재연구소는 기존 전문

연구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
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자재료/광
학재료/물리학/전기전자 분야의 관
련 전문가를 신규로 영입해 기록매
체 관련 소재, 반도체 관련 소재등
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기술융합(Interdisciplinary)
연구를 강화하여 독자적인 연구영역

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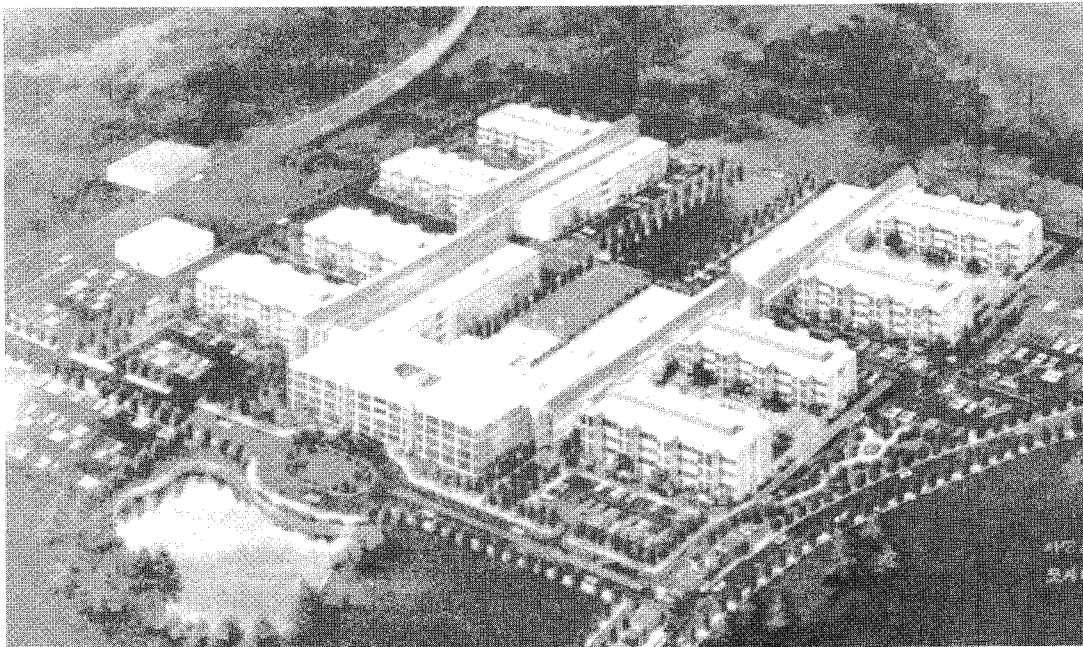
김종성씨의 안내로 4개의 실험실
만 도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만큼 거
대한 건물로 연구소가 이루어졌다.

연구소의 특징은 양옆에 실험실이
있고 중앙으로 실험실습기가 설치되
어 있어 연구하는데 공간의 활용과
실험기기의 사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었다.

‘고객을 위한 기차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공유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LG화학!

조감도에서 보면 약 20%밖에 신
축되어지지 않은 연구소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웅장하니 건물이
완전히 설계되어지면 21세기 한국의
화학공업은 바로 이 건물안에서 시
작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변준섭 기자



◀ 94년 10월
27일 개원한
LG연구원의
2000년 완공
모습 조감도